

아타나시우스 신조

김현수 사역

[1] 누구든지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¹⁾ 보편적²⁾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2] 이 믿음을 온전하고³⁾ 순결하게 보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3] 그리고 보편적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삼위이신 한 분 하나님, 곧 한 분이신 삼위를 경배하되,

[4] 그 위격들을 혼합하지도 않고 본질을 분리하지도 않습니다.⁴⁾

[5] 왜냐하면 성부가 한 위격이시고,

성자도 한 위격이시며,

성신도 한 위격이시기 때문입니다.

[6] 그러나 성부 성자 성신의 신성은 하나이고,

그 영광이 동등하고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합니다.

[7] 성부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성자도 그러하시고

성신도 그러하십니다.

[8] 성부께서 창조되지 않으시고,

성자도 창조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성신도 창조되지 않으십니다.

[9] 성부께서 무한하시고,

성자도 무한하시고,

(그리고) 성신도 무한하십니다.

1) '무엇보다도 먼저'(ante omnia)는 '어떤 행위보다도 먼저'라는 뜻으로 행위에 앞서 신앙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2) '보편적'이라는 말은 '이단적'이라는 말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보편성'은 '사도적 교훈을 따른 것'이다.

3) '온전하다'는 것은 '모두' '하나도 빠짐 없이'라는 의미이다.

4) '혼합'과 '분리'는 칼케돈 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의에서 가져온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른 맥락에서 삼위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혼합'은 사벨리우스주의에 대한 반대로, '분리'는 아리우스주의자에 대한 반대로 이해하였다.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반박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 [10] 성부께서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고,
(그리고) 성신도 영원하십니다.
- [11] 그러나 영원하신 세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한 분이십니다.
- [12] 이처럼 창조되지 않은 세 분과 무한하신 세 분이 아니고
창조되지 않은 한 분과 무한하신 한 분이십니다.
- [13] 동일하게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그리고) 성신도 전능하십니다.
- [14] 그러나 전능하신 세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한 분이십니다.
- [15] 그리하여 성부께서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신도 하나님이십니다.
- [16]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 [17] 이렇게 성부께서 주님이시고,
성자께서 주님이시고,
(그리고) 성신께서 주님이십니다.
- [18] 그러나 세 분 주님이 아니고,
한 분 주님이십니다.
- [19]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의하여
각 위격이 하나님이심과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20] 그렇게 보편적 믿음⁵⁾에 의하여
세 분 하나님과 (세 분) 주님을 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21] 성부는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나지 않았습니다.
- [22] 성자는 오직 성부로부터 나오시나,

5) ‘보편적 믿음’(catholica religione)은 앞 항의 ‘기독교 진리’와 짝을 이루는 말이다. ‘종교’(religio)는 ‘믿음’의 의미이다.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시고 나신 분입니다.

[23] 성신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나,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나지 않았고, 나오신(發出) 분입니다.

[24] 따라서 한 성부이시고 세 성부가 아니며,

한 성자이시고 세 성자가 아니며,

한 성신이시고 세 성신이 아니십니다.

[25]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서 누구도 먼저 계시거나 뒤에 계시지 않고,

누구도 더 크거나 더 작지 않으십니다.

[26] 오히려 세 위격이 모두 함께 영원하시고

함께 동등하십니다.

[27]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일에서 삼위이신 한 분 하나님,

곧 한 분이신 삼위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28]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께 관하여 그렇게 깨달아야⁶⁾ 합니다.

[29] 그렇지만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30]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동등하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1]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성부의 본질에서부터 만세 전에 나시고,

또한 사람이시며 그 모친의 본질에서부터 세상에⁷⁾ 태어나셨습니다.

[32]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또한 이성적인 영혼과 사람의 육신으로⁸⁾ 이루어진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33] 신성에서는 성부와 동등이시오

6) ‘깨닫다’(sentio)는 단순히 ‘생각한다’(think)는 뜻이 아니고 경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7) ‘세상에’(in saeculo)는 ‘만세 전에’(ante saecula)와 대비된다. ‘시간계 안에’로 옮길 수 있으나 일상적인 말을 택하여 ‘세상에’로 옮겼다.

8) ‘이성적인 영혼’과 ‘사람의 육신’은 칼케돈 신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인성에서는 성부보다 열등하십니다.

[34] 그분은 하나님이지고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둘이 아니고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35] 한 분이신 것은 신성이 육신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으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된 일입니다.

[36] 온전히 하나이심은 본질이 혼합된 것이 아니고

위격의 일체로 된 일입니다.

[37] 이성적인 영혼과 육신이 한 사람이듯이,

하나님과 사람이신 그분이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38] 이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음부에 내려가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날에 부활하셨습니다.

[39]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40] 거기에서부터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41] 그분이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 육체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42]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대로 직고할 것입니다.

[43]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불로 들어갈 것입니다.

[44] 이것이 보편적 믿음입니다.

이것을 신실하고 확고하게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